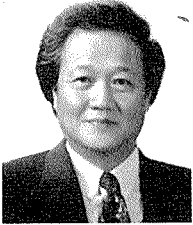


새 천년에는 새로운 시각으로 도서관발전의 길을 모색하자



한국도서관협회
회장 이 두 영

올해는 예년과 달리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시작되었다. 기대와 소망이란 陳腐하고, 無事安逸하고, 개혁을 두려워했던 과거의 사고 방식에 대한 厭症에서, 그리고 창조적이고 전향적인 것에 대한 念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새해에 대한 기대가 이렇듯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2000년 이야말로 21세기를 내다보는 새로운 비전과 함께 희망 찬 첫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도서관학은 1950년대 중반에 당시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혀 없었던 暗澹한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도서관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이나”는 질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주고 서가에 책을 정리하는 도서관직원을 倉庫담당 정도로 알고, 서슴없이 “아저씨”라 부르기도 했다. 점차로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현장에 나가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였고, 외국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학위소지자들이 속속 귀국해서 우리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 이 즈음해서 이 사회는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보화’가 사회 각 부문에서 변혁의 핵심 과제가 되었고, 특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혁신은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켰던 것이다. 이제 오늘의 도서관은 전산화된 도서관정보시스템, 네트워크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멀티미디어도서관의 개념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지능형 정보검색과 인터넷 자원의 활용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다. 학과 명칭도 도서관학이 아닌 문헌정보학으로, 학회 명칭도 “정보”라는 키워드가 함께 쓰이는 변화가 있었다. 최근에는 디지털도서관 개념을 구현하는 일이 문헌정보학의 중점 연구과제가 되면서 다른 관련 학문분야와 함께 공동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는 정보보다 지식이 강조되는 사회에서 정보의 지식화를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우리 학문의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우리 학문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연구 및 응용 부문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현장 또한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도서관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놓은 것이 사실이다. 이 모두가 우리 도서관인들의 긍지와 피나는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결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새 천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도 해결의 방향을 정하지 못한 몇몇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문제는 우리가 문제해결을 위해 이미 孤軍奮鬪해 온 문제들로서 그 내용은 다 음과 같이 그냥 키워드로 나열해도 잘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정부의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대학의 학부제와 복수전공제에 따른 문헌정보학과 장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서자격증의 존폐 및 사서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수 학점의 제한 등의 문제가 있다. 공공도서관 명칭변경의 확산, 도서관의 책임 경영제 또는 민간위탁의 확산 가능성의 문제가 있고, 도서관 업무의 아웃소싱의 한 계 등이 아직도 문제거리로 남아 있다. 또한 국립공공도서관장의 사서직 보임을 정 하고 있는 법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 도 있다. 올해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만큼 이상 언급한 몇몇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더 진보적이고, 시대 감각적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즉, 과거처 럼 새로운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내재한 가운데 오로지 우리의 입장을 固守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시각에 서 문제를 풀어 가자는 것이다.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천년을 향해 질주하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하루 속히 적응하고, 무한경쟁에서 목표하는 고지 를 선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날 지능형 정보검색, 자동색인, 전문 및 멀티미디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가 다른 학문분야에서도 심도있게 시작될 무렵, 문헌정 보학 쪽에서는 우리 고유의 학문영역이 침범 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 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디지털도서관의 구현”을 위한 연구가 문헌 정보학을 중심으로 관련 학문인 컴퓨터공학, 인공지능, 커뮤니케이션, 언어학, 경영 정보학의 전공자들과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우리도 우리의 영 역을 활짝 내 보일 만큼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성숙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 었다.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대학의 학부제, 모집단위 통합 및 복수전공 등으로 인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태는 우리 전공을 지망하는 신입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2003년에 이르면 대학 전체에 정원미달 사태가 불어닥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 문헌정보학과는 대학대로의 특성화 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의 문헌정보학은 대학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료조직,

서지학, 정보학, 경영, 정보봉사 등으로 전공을 구분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서직의 전문성에 따라 Public librarian, Children's librarian, Medical librarian, Business librarian, Legal librarian, Information specialist, Curator, Archivist 등으로 전공을 구분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정원미달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이 예컨대, Medical librarian 전공 또는 Archivist 전공으로 특화해서 학부의 복수전공제와 조화를 이루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공교수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입학 지망생의 집중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법에 의해 문헌정보학과 졸업자에게 발부되는 사서자격증은 대학이 발부하는 성적증명서 또는 문헌정보학과 졸업증명서로서 대치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이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복수전공제도로는 사서자격증의 남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2급 정사서 자격요건으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로 수정하자는 우리 측 특별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서 정부측은 학점제한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가할 뿐 아니라, 복수전공이라는 개혁방침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 1급은 2003년 1월 1일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한자로 하였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사에 대한 국가검정 자격시험이 2000 년말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볼 때 이제는 우리도 국가시험제도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책임경영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지난해 책임경영제의 일차적 대상 기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거론된 일이 있었다. 또한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산업기술정보원에서는 이들의 기관장을 처음으로 공모 방식에 의해 임명한 바 있다. 이처럼 기관장 임명을 과거의 낙하산식이 아니라 전문성을 중시하는 공모방식을 채택한 기관들이 최근 문화, 예술 계에서도 여러 곳 눈에 띄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전공분야와 관련된 기관의 전문 경영인으로 일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서관의 위탁관리는 소수이긴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곳이 있고, 현재 위탁관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몇몇 있다. 대체로 도서관 위탁관리는 신축 공

공도서관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도서관을 신축할 때마다 위탁관리의 방침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는 사서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적극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탁관리가 민간 전문단체가 아닌 무슨 공단 쪽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러한 위탁관리문제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오늘의 우리 나라 도서관계는 다른 나라 도서관계와의 국제교류나 공동과제 수행, 국제세미나 개최 등의 국제관계가 정치, 경제, 스포츠 등 다른 부문과 비교해 너무나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지난 1998년 암스테르담 IFLA 국제대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IFLA 서울 유치의 노력이 1999년 방콕대회에서 2006년으로 확정되기까지의 힘들었던 과정에서 우리 나라 도서관계의 수준과 저력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리 협회와 일본도서관협회와의 협정에 의한 실질적인 교류가 1999년부터 시작되었고, 중국도서관협회와의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쌍방간의 방문이 올해 2000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미국도서관협회와의 교류협정은 금년에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 도서관계를 세계에 알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도서관인들이 국제회의 참석은 물론, 국제 워크숍 및 세미나 주제 발표, 각종 국제기구의 분과위원회나 지역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도서관계의 학문적 수준과 현황을 알리는 영문학술지의 창간도 국제적 홍보차원에서 시급하다고 본다.

이제는 우리 도서관인들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갖고 꿈의 날개를 펼 수 있는 활동무대가 국내·외적으로 활짝 열려있다. 지난 2월 1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도서관이 국민들의 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하여 도서관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최근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국립중앙도서관 및 우리 협회가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은 앞으로 도서관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의 영역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도서관의 위상과 사서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高揚될 것으로 기대된다.